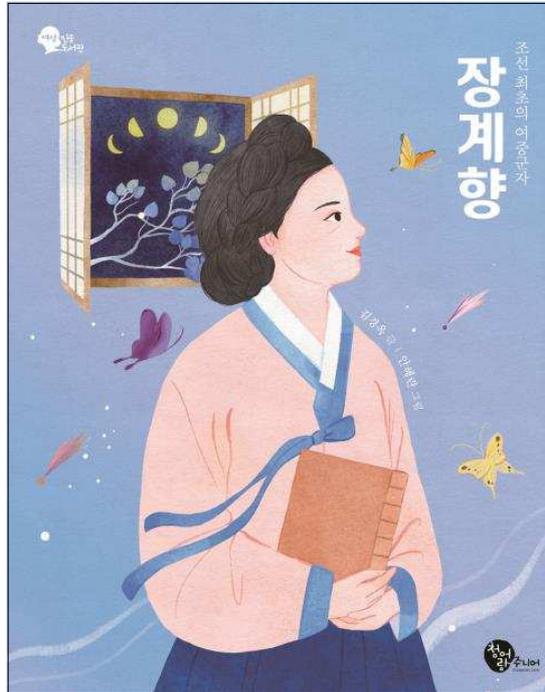


# 조선 최초의 여중군자 장계향



## 책 소개

경당가 그리고 금계마을이 오래 기다려 온 끝에 태어난 계향은 그림도 잘 그리고, 시도 잘 짓고, 붓글씨도 잘 쓰는 총명한 여자아이로 자랐어요. 하지만 조선 시대에는 여자가 많이 배우는 게 흠이었기 때문에 계향의 부모는 똑똑한 딸을 걱정했어요. 계향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이 무얼 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요. 아버지에게 덕과 공경을, 어머니에게 살림을 배우던 계향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로 유명한 충효당의 며느리가 되어 충효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끝없이 늘어만 가자 계향은 한 끼 식사 대신 사람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빈민구제 계획을 세우기로 마음먹었어요.

도토리나무 숲을 가꾸어 배고픈 사람들을 살게 한 조선 최초의 여중군자, 장계향을 만나 보세요.

역사의 책갈피에 숨어 있는 옛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 인물 도서관' 시리즈 세 번째 《조선 최초의 여중군자 장계향》은 왜란과 호란, 기근 등 힘든 일이 많았던 조선 후기에 चु고 배고픈 사람들을 살렸던 여중군자 장계향의 이야기를 담은 인물·역사 동화입니다.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평생 편하고 굶게 살 수 있었던 장계향이 왜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로 마음먹었고 어떻게 나눔을 실천했는지, 이야기를 따라가며 장계향의 선함과 정의로움 그리고 군자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교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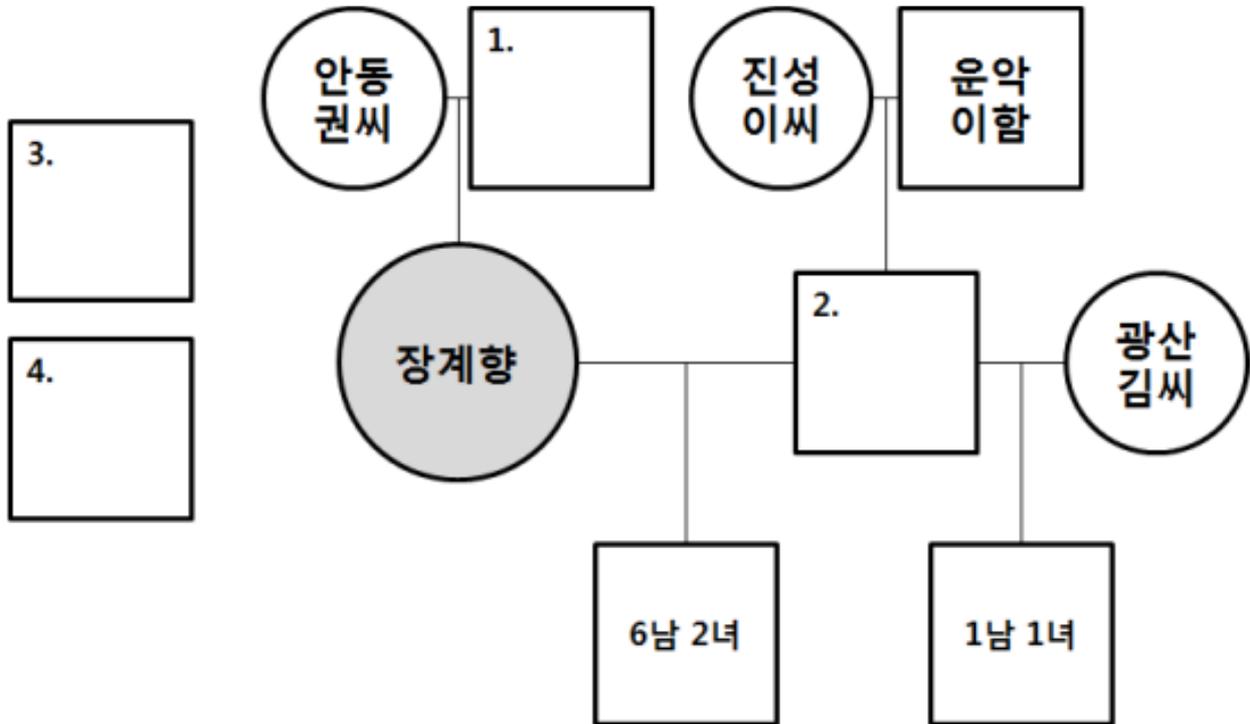
5-2	사회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3) 민족 문화를 지켜 나간 조선
-----	----	--------------------------------------

## 작품 키워드

#임진왜란 #나눔 #음식디미방 #여중군자 #장계향 #빈민구제 #조선시대 #역사동화 #인물동화

 <p><b>독서단원</b> <b>-독서 전</b></p>	<p><b>조선 최초의 여중군자 장계향</b></p> <p>(인물 관계도)</p>	<p>초등학교 _____</p> <p>학년 반 번 _____</p> <p>이름 : _____</p>
	<p>글 : 김경옥 그림 : 안혜란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p>	

책을 읽기 전에 조선 시대의 인물을 조사해서 다음 빈칸을 채워 봅시다.



**[인물 설명]**

1. 장계향의 아버지이자 조선 시대 학자예요. 관직에 오르지 않고 학문을 닦으며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힘을 쏟았어요. 조선 시대 대학자의 학문을 이어받아 경(敬) 사상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음양 변화의 원리와 이치를 연구하는 역학이라는 학문을 오래 연구했지요. 《경당문집》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2. 장계향의 남편이자 조선 시대 학자예요. 진사를 뽑는 시험에 합격했으나 다른 나라가 조선에 쳐들어오는 등 나라의 어지러운 상황에 충격을 받아 관직에 오르지 않고 조용히 살았어요. 장인인 장계향의 아버지에게 학문을 배워 이후 자신의 아들에게도 가르쳐 주었지요.
3. 조선 시대의 문신이자 대학자예요. 성리학을 체계화했고, 도산 서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공경이라는 뜻의 경(敬) 사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자들이 이 사상을 이어받아 계속 연구하기도 했지요. 천 원짜리 지폐에 찍혀 있는 인물로 유명해요.
4. 조선 제14대 왕이에요. 왕위에 있는 동안 조선 최대 전쟁이었던 임진왜란이 일어났지요. 조선의 비합리적인 제도를 정비하려고 노력한 왕이라는 평가와, 전쟁 때 백성들을 두고 도망치고 자신이 뽑았던 이순신의 계급을 낮추는 등 왜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왕이라는 평가를 함께 받고 있어요.

 <p><b>독서단원</b> <b>-독서 중</b></p>	<p><b>조선 최초의 여중군자 장계향</b> (날말 퍼즐)</p>	<p>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_____</p>
	<p>글 : 김경옥 그림 : 안혜란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p>	

《조선 최초의 여중군자 장계향》을 읽고, 다음 날말 퍼즐을 완성해 봅시다.

①					⑥		⑦		
									⑨
			②					⑧	
					⑩				
③								⑪	⑫
			④		⑬		⑮		
		⑤			⑭				

**가로**

- ① 한 스승 밑에서 함께 학문을 배우거나 수업을 받음.
- ②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방.
- ③ 짚, 띠 등으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
- ⑤ 아이를 낳을 때에, 아이를 받고 산모를 도와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던 여자.
- ⑥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문 앞이 시장을 이루다시피 함을 이르는 말.
- ⑧ 과거 시험의 문과와 무과를 이르던 말.
- ⑩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
- ⑪ 어린아이의 작은 이불.
- ⑭ 조선 시대에 둔 각 도의 으뜸 벼슬로, 그 지방의 경찰관·사법관·징세권 등의 행정상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종이 품 벼슬.

**세로**

- ①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성 식물.
- ② 이름난 사람의 글씨나 매우 잘 쓴 글씨를 모아 만든 책.
- ③ 사물을 너그럽게 용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
- ④ 정치에서의 이해관계에 따라 따로따로 모인 무리.
- ⑦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
- ⑨ 고려·조선 시대에, 군사 일을 맡아보는 관리인 무관을 뽑던 과거 시험.
- ⑩ 조선 시대에, 군대에 가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신 받아들여던 베.
- ⑫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의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으로, 묵은 곡식은 거의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농촌의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⑬ 관직에 임명됨.
- ⑮ 예전에, 벼슬을 하지 않고 시골에 살던 선비.

 <p><b>독서단원</b> <b>-독서 중</b></p>	<p><b>조선 최초의 여중군자 장계향</b></p>	<p>_____ 초등학교</p>
	<p>(독서 퀴즈)</p>	<p>_____ 학년 _____ 반 _____ 번</p>
	<p>글 : 김경옥 그림 : 안혜란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p>	<p>이름 : _____</p>

1. 《조선 최초의 여중군자 장계향》을 읽고, 이야기 속 빈칸을 보기에서 찾아 시간 순으로 채워 봅시다.

계향이 공경할 경 자 를 알아보다.	→	①	→	계향이 귀복에게 화 전을 건네다.	→	계향이 흥효의 손님 에게 오미자 착면을 설명하다.
						↓
계향과 시명이 혼인 하다.	←	계향이 시명에게 수 증계를 대접하다.	←	귀복이 계향에게 과 거 시험을 보고 싶 다고 말하다.	←	②
						↓
③	→	도롱이를 걸치고 샷 갓을 쓴 사람이 계 향을 찾아오다.	→	계향과 시명이 석보 촌 두들마을로 이사 하다.	→	④

[보기]

<p>㉠ 임진왜란이 일어난다.</p> <p>㉡ 계향이 〈학발시〉를 쓰다.</p> <p>㉢ 병자호란이 일어난다.</p> <p>㉣ 시명이 계향의 시를 붓글씨로 적다.</p>	<p>㉤ 계향이 충효당에서 빈민 구제에 힘쓰다.</p> <p>㉥ 관찰사가 시명을 끌고 가다.</p> <p>㉦ 계향이 소년 무사 복장인 귀복과 작별하다.</p> <p>㉧ 계향이 천자문을 공부하다.</p>
--	--

2. 권 씨는 왜 아이를 낳고 눈시울을 붉혔나요? (13쪽)

( \_\_\_\_\_ )

3. 흥효가 딸의 이름을 짓기 위해 떠올리고 이름자를 따온 식물은 무엇인가요?…… ( ) (12~13쪽)

- ① 봄꽃    ② 계수나무    ③ 냉이    ④ 대나무    ⑤ 토란

4. 계향은 왜 귀복을 사내아이라고 착각했나요? (21쪽)

( \_\_\_\_\_ )

5.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31쪽)

“네, 어머니. 근데 이건 어떤 음식인가요?”  
 계향은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 시원해 보이고 색깔도 예뻐 궁금해졌다.  
 “이 음식은 녹두 가루로 앙금을 내고 목을 만들어 국수처럼 썬 뒤, 오미자 국물 우려낸 것을 부어  
 잣을 띄운 음료란다.”

( \_\_\_\_\_ )



11. 애 엄마가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88쪽)

“뭐라고? 내가 아무리 얻어먹고 다녀도 다 자존심이 있어. 충효당은 이깟 죽사발 하나 내밀고 이렇게 모욕을 주는 곳인가? 젓먹이 줄 젓이 안 나와 그깟 세 번 더 먹은 걸 가지고!”  
애 엄마는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부더니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채 마당에 풀썩 쓰러졌다. 등에 업혀 있던 아기도 바닥으로 나동그라져 악을 쓰며 울어 댔다.

( )

12. 귀복은 어떤 꿈을 이루었나요? (101쪽)

“귀복이 맞구나. 네 눈을 나는 알지. 이게 얼마 만이야. 그동안 어찌 지냈니?”  
“쫓기는 몸이라 자세한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먼 길 가는 중에 너를 꼭 만나고 싶어 들렸어. 고마워, 계향아. 나는 네 덕분에 이루고 싶은 꿈을 이뤘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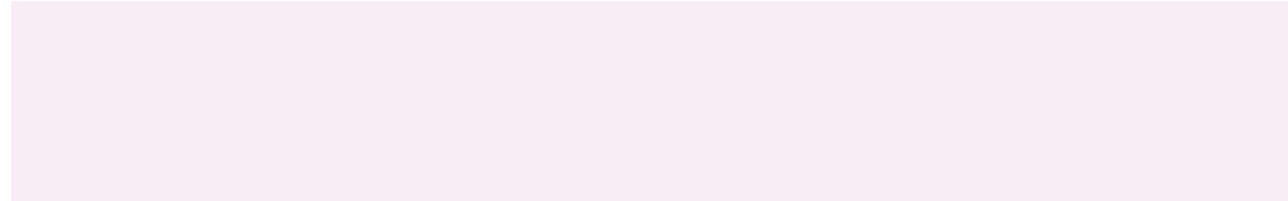
13.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전쟁 이름은 무엇인가요? (104~105쪽)

얼마 후 청나라 태종이 10만여 명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해서 ○○○○이라는 전쟁을 일으켰다. 임금이 항복하고 백성들이 청나라에 잡혀가는 등 나라는 또 어지러웠다. 백성들은 굴욕을 느껴야 했다. 시명 또한 조선 백성이 겪는 굴욕적인 사건들로 인해 좌절했다.

( )

14. 관찰사와 포졸들은 왜 시명을 잡으러 왔나요? (106~107쪽)

그러던 어느 날, 관찰사가 포졸들을 이끌고 집에 찾아와 느닷없이 시명을 잡아가겠다고 했다.  
“무슨 일인지나 밝히고 잡아가시오.”  
시명이 소리쳤다. 계향은 남편 시명이 포졸들에게 붙잡혀 가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



15. 계향은 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을까요? (109~110쪽)

분가를 결심하면서 계향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명에게 제안을 했다.  
“가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대부라는 명분으로 버젓이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일은 불평등하며 부끄러운 일입니다.”





 <p><b>독서단원</b> <b>-독서 후</b></p>	<p><b>조선 최초의 여중군자 장계향</b> <b>(독서 토의·토론)</b></p>	<p>_____ 초등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_____ 번</p>
	<p>글 : 김경옥 그림 : 안혜란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p>	
	<p>이름 : _____</p>	

1. 조선 시대에는 칠거지악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옛날과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과 상황을 비교하며 칠거지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흥효는 마음이 몽클해졌다. 아이 없이 지내 온 세월이 18년이나 되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부인 권 씨가 늘 죄인처럼 미안해하는 것이었다. 칠거지악<sup>●</sup> 중 하나인 아들을 낳지 못한 죄는 대부분의 여성들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였다. (10쪽)

●칠거지악(七去之惡) : 예전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일곱 가지 허물. 시부모에게 불손함, 자식(아들)이 없음, 행실이 음탕함, 투기함, 몹쓸 병을 지님, 말이 지나치게 많음, 도둑질을 뜻함.

2. 조선 시대에는 여자가 과거 시험을 볼 자격이 없고 무관이 될 수도 없었지만 계향은 귀복에게 도전해 보라고 말합니다. 계향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무예를 익혀 무과에 도전하려는 이유가 뭐니? 벼슬을 하고 싶은 거니?”

그러자 귀복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뭔가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어. 여자도 군사가 되어 나라를 지킬 수 있잖아. 네가 항상 말했잖아. 실천으로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것이 공부라고.”

“귀복아, 네가 그토록 해 보고 싶은 일이라면 도전해 봐.” (53쪽)

3. 장계향은 사람들에게 음식, 옷, 약, 잠자리를 챙겨 주고 《음식디미방》을 펴내서 음식 조리법을 알리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돕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너희들에게 당부하마. 나 혼자서 절대 아무것도 아니다. 함께 살고 서로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봐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게야. 내 말을 잊지 말거라.” (124~125쪽)



**독서단원**  
**-정답**

**조선 최초의 여중군자 장계향**  
**(인물 관계도, 낱말 퍼즐, 독서 퀴즈)**

글 : 김경옥 그림 : 안혜란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_\_\_\_\_

**인물 관계도**

1. (경당) 장흥효 2. (석계) 이시명 3. (퇴계) 이황 4. 선조

**낱말 퍼즐**

①동	문	수	학		⑥문	전	⑦성	시	
아							인		⑨무
			②서	실				⑧대	과
			첩		⑩군	자			
③도	룡	이			포			⑪강	⑫보
량									릿
			④정		⑬임		⑮저		고
		⑤산	파		⑭관	찰	사		개

**독서 퀴즈**

- ① - ㉠ 계향이 천자문을 공부하다.  
② - ㉡ 계향이 <학발시>를 쓰다.  
③ - ㉢ 계향이 충효당에서 빈민 구제에 힘쓰다.  
④ - ㉣ 시명이 계향의 시를 붓글씨로 적다.
- 딸을 낳은 것이 서운해서, 딸을 낳아서 남편이 싫어할까 봐 등.
- ② 계수나무
- 귀복이 남자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귀복이 오라버니 옷을 물려받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등.
- 오미자 착면
- ④
- 공부에 집중하다 살림을 제대로 익히지 않을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여자가 공부하는 것을 좋지 않게 봤기 때문에 등.
- 자신은 학문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지만 귀복은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났기 때문에, 여자로서 집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등.
- (영해 나랏골) 충효당
- 만권당
- 오랜만에 밥을 먹는데 너무 빨리 먹어 급체했기 때문에, 막말을 듣고 성질을 못 참아 급체했기 때문에 등.
- 무예를 익혔다, 무과에 합격했다, 나라를 지키는 군사에 지원하게 되었다 등.
- 병자호란
- 이시명이 소작인들을 불러 매질을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소작인들이 도망간 게 이시명 때문이라는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소작인들이 충효당에서 농사짓고 싶어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한 양반들이 계획적으로 충효당을 음해하는 소문을 만들어 이시명에게 죄를 뒤집어씌웠기 때문에 등.
- 다른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데 혼자만 잘 먹고 살면 미안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양반들은 일하지 않아도 재산을 물려받으면 되는 게 부끄럽기 때문에, 빈민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과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등.